[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사 참배‥도법스님과 환담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0.06 16:46 | 호수 3686 | 댓글 0

10월6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실상사를 참배했다. 지리산 금계 마을로 향하기 전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양 손을 펼쳐보이고 있는 도법스님(사진 왼쪽)과 자승스님.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자승스님이 남원 실상사를 찾았다.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이 운영하는 사부대중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 사찰의 현실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리순례단은 순례 6일차인 10월6일 새벽 예불을 마친 뒤 실상사로 향했다. 실상사 보광전을 참배한 순례단은 선재의집에 모여 실상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드라망 공동체, 산내마을 공동체, 사부대중 공동체 등을 소개 받았다. 반가움도 잠시 또 다시 먼 길을 가야하는 순례단을 위해 실상사는 따뜻한 떡국을 준비하며 순례단의 허기를 채웠다.

실상사는 신라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이자 불교계를 대표하는 생명평화운동가로 꼽히는 도법스님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법스님은 자승스님이 전 총무원장 재임 시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등을 맡으며 돈독한 인연을 쌓았다.

전국을 다니며 생명평화탁발순례 등을 이끈 바 있는 도법스님은 "소박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순례단을 환영한다"며 "그 신심과 발원들이 한국불교의 새 활로를 여는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실상사 주지 승묵스님도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는 '따로 또 같이' 운영되는 공동체로 주1회 집중수행의날을 갖는 등 승재가가 수행과 살림 등에서 각 역할을 담당하며 사찰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동체를 소개하며 "바쁜 일정에도 120km를 걸어 실상사를 찾아준 천리순례단에 감사하다"고 했다.

불교신문TV 더보기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2-1…

포토뉴스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

섹션별 최신기사

"SNS어 뉴스

불교신문TV

[오심스님의 삼보

많이 본 기사

1 [삼보사찰 천리
2 [삼보사찰 천리
3 [삼보사찰 천리
4 [삼보사찰 천리
5 [삼보사찰 천리
6 [삼보사찰 천리
7 [삼보사찰 천리
8 [삼보사찰 천리
9 조계사 불교대
10 [삼보사찰 천리

최신뉴스

• 해인사 "문화재관람
• "불교계 매도 정청래
• [삼보사찰 천리순례
• 영축총림 통도사, 13
• (사)경남파라미타청
• 영축문화재단, 제9회
• 선각자 '백성욱 박사
• 내 마음과 세상을 밝
• 목련존자 지극한 효
• 한옥목수의 촌집수리

자승스님은 도법스님과 아침 공양을 함께 한 후 자리를 옮겨 30분 간 이야기를 나눴다. 자승스님은 오랜 경험으로 체계적 운영 시스템을 갖춘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른 각 사찰도 실상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좋은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 전 발원문을 읽고 있는 순례단.

숙영지를 떠나 실상사로 향하는 길.

종단 "불교계 매도 정청래 의원 공개 사과" 촉구
전국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의미 왜곡 정정래 …
사회&국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청래 의원 '…
인물 [본·말사 주지 인사] 2021년 9월 30일 종…
대중공사 [포교현장에서] 청년회의 또 다른 즐…
수행&신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긴장 …
문화 은은한 차향에 담긴 '조계사 예불소리'의 …
기획&연재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
출판&문학 선각자 '백성욱 박사' 삶과 가르침 …
학술&문화재 "이웃에게 큰마음 내는 게 수륙…
복지&상담 "수제 비누와 샴푸, 이웃과 나눠요"

대한불교조
불교전문
www.
02)2
법공양 (기획PR)
세무사
이상
세무회계 상
조계종 다수
서울시 영등포구

도법스님이 자승스님에게 염주를 선물했다.

실상사는 순례단을 위해 따뜻한 떡국을 마련했다.

사부대중 공동체 운영 방식에 따라 실상사 대중은 둘러앉아 공양을 한다.

남원=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깨달음 얻…
-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
-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영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한국불교 중흥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하며…무…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미를 다시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새 운동……
-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다리…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은 총무원…
-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인…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길…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딸과 평생 한번뿐…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고 50년…
-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고 물집 …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B